

한전 전남지사 사회봉사단, 광주 영아일시보호소에 놀이터 선물

“우와~ 우리에게도 놀이터가 생겼어요”



지난 16일, 광주 소재에 위치한 대한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소의 아이들은 예쁜 놀이터를 선물 받았다. 한국전력 전남지사 사회봉사단이 이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60명의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700만원의 기부해 놀이터를 지어준 것.

아이들에게 ‘깜짝선물’을 한 한전 전남지사 사회봉사단은 지난 2004년 ‘사회 봉사도 업무 중 하나’라는 취지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62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사회봉사단은 3개조로 나뉘어 매주 화요일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한전사회봉사단과 대한사회복지회 영아일시보호소 가족들이 '한빛 놀이터'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한전사회봉사단 직원들은 아이들 이름 짓는 것이 내 아이 이름 짓는 것보다 어렵다고 애정어린 불평을 털어놓으면서도 일부러 작명소까지 찾아가 좋은 이름을 지어준 만큼 작명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회봉사도 업무중 하나’ 3년째 활동 꾸준한 후원과 관심...유아용품 기증도

■ 단 신

전남사회복지모금회 산모를 행사

○~전라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남장애인시설협회(대표 나중학)와 공동으로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동안 구례 화엄사와 성삼재 노인단에서 ‘장애우와 함께 행복한 동행, 장애우 산모를’ 행사를 연다.

이번 행사에는 전남도내 10개 시설에서 6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여하게 된다.

도우미 필요 장애인 유권자 신청

○~2006광주지방선거 장애인연대는 22일까지 장애인의 투표 참여 확대를 위한 차량 및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을 모집한다.

투표장까지 이동이 어려운 1.2급 장애인들과 노인들은 투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차량과 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062-513-1080, www.gj21.or.kr

이해인 수녀 초청 피정

○~광주평화방송(사장 송종의 신부)은 이해인 수녀와 함께하는 ‘지붕 위에서 외치라-광주 평화방송 후원회원을 위한 피정’을 가진다.

이번 피정은 ‘시와 노래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5월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22일 오전 10시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23일 오전 10시 순천 연합동성당 등 2곳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후원회원 5천원, 비회원은 1만원. 문의 062-231-7730,7709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 설명회

○~광주지방 노동청과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광주지사가 오는 23일 오후 2시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다목적실에서 ‘장애인고용사업주 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주전남지역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변경내용 ▲기업맞춤교육 사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문의 062-511-1983

/팩션정기자 ksj@kwangju.co.kr



사람들은 21세기를 ‘세계화의 시대’라고 부른다. 갈수록 다변하고 다원화되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세계화(Globalization)를 실감한다. 이런 세계화를 실감나게 하는 것 중 하나는 길에서 만나는 외국인이다.

외국인 = 외래인(外來人)?

한마디로 이 땅에서 외국인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외래인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외국인이 외래인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시절 이 땅에서 외국인, 특히 영어를 사용하는 백인은 선망의 대상이었다.

Large advertisement section containing various notices, job listings, and real estate ads. Includes '생활정보' (Life Information), '인사발령' (Personnel Appointment), '찾나다' (Find), '일터찾기' (Job Finding), and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일 판매' (Used Cars Daily Sale).